

큰빛은혜교회 가정예배지

2025. 4. 23. WED



가정 예배 순서

예배준비 가족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시간을 정해주세요
인도자 / 기도자 등의 순서를 정해주세요

사도 신경

다 같 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임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 양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 같 이

각 가정마다 악기를 가지고 아래 찬양 혹은 원하시는 찬양을
선곡하여 찬양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별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후렴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대표 기도

가족 중 한 명이 기도합니다

기 도 자

성경 봉독

창세기19장15~23절

다 같 이

15.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 내라 이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 할까 하노라
16.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17.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 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18.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19.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20.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 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이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21.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네 소원을 들었은즉 네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22.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네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23.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둘았더라

말씀 나눔

비참한 인생

인도자

지나간 세월을 돌이켜 보면 누구든지 쓰라린 경험을 하지 않은 사람은 찾아보기 드물 겁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롯의 뼈아픈, 그리고 쓰라린 고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그의 말년은 참으로 비참하였습니다. 무엇이 그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었습니까?

첫째, 지체하는 삶의 태도가 비참한 인생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에도 불구하고 롯은 소돔을 떠나는 데 지체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보다 자신의 삶의 방식에 안주하였습니다. 그것은 즉각적인 순종의 자세가 아닌 세상 품속에 머물려는 삶의 방식입니다.

본문 16절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만약 하나님의 사자들이 롯을 잡고 성 밖으로 끌어내지 않았다면, 롯 또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망할 때 그 속에서 같이 멸망하였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우리의 악한 생활 습관에 머물러 있을 때 검은 그림자가 우리를 덮치려 할 것입니다.

결국 롯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게 되어 살게 되었지만 이제부터 그의 인생은 비참한 인생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둘째, 미련을 두는 삶의 태도가 비참한 인생들의 특징입니다.

롯은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서도 급히 피하기보다는 옛 것에 연연하였습니다. 그래서 소돔성을 피하여 산으로 도망가라는 하나님의 사자들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소돔과 고모라 옆에 위치한 또 하나의 작은 성 소알로 피하고 싶다며 미련을 가진 마음을 드러냅니다.

본문 17절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 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본문 20절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이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롯은 하나님께서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방식대로 행하기를 좋아합니다. 옛 것에 미련을 두는 삶은 곧 자신의 삶의 방식에 미련을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롯의 아내는 뒤돌아보지 말라는 명령에도 불구하고 돌아보다가 결국 소금기둥이 됩니다.

창세기 19장 25~26절 “25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26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기둥이 되었더라.”

그러므로 비참한 인생은 머뭇머뭇 지체하는 습관이 시작이며, 미련을 가진 마음을 지니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오늘도 비참한 인생에서 벗어나기 위해 결단과 확신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이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눔

다같이

1. 롯이 소돔을 떠나는 데 지체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2. 하나님의 자비로 인해 롯이 구원받았지만, 그의 인생은 왜 계속해서 비참했을까요?
3. 우리의 삶에서 지체하거나 미련을 두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로부터 벗어나도록 오늘 우리에게 어떤 결단을 원하시는지 함께 나눠 봅시다.

종보기도

담임 목사님을 위해

다같이

1. 이 시대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영적 지도자가 되도록
2. 말씀 준비하실 때마다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가 있도록
3.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시도록
4. 많은 사역 속에서도 몸과 마음이 지치지 않고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5. 목사님 가정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넘치도록

마무리기도

다같이

사랑의 하나님, 롯의 삶을 통해 지체함과 미련이 결국 인생을 비참하게 만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하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세상의 것에 미련을 두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결단과 확신으로 주님의 뜻을 따르게 하시며, 우리 가정과 교회가 순종의 본이 되어 주님께 쓰임받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다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